

해남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탄력

생활SOC 복합화 가족센터 우수 사례 선정
다목적 소통공간 호평...새 공동체 형성 기대

해남군이 오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인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이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 가정건강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생활SOC

복합화 가족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향후 인구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생활SOC 복합화 가족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은 2019-

2020년 가족센터 SOC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족센터 공간구성의 적절성, 운영 계획 타당성, 안전계획 등을 심사했다. 어울림센터내 2-3층에 들어설 예정인 가족센터는 이용수요를 예측해 남양에 장남감도서관과 동네카페 등 다목적 가족소통·교류 공간을 배치, 서림공원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실내놀이터와 가족 화장실을 계획해 공동육아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가족 및 개인 상담실 별도 구분, 이주여성·다문화 자녀의 언어 및 육아정보 제공을 위한 공간구성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간 정보공유, 개인 및 가족상담, 나눔·소통 품앗이 지원 등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가족센터에서는 다문



해남 땅끝어울림센터 조감도. /해남군 제공

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전국 최고의 가족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3차례 보고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7월에는 층별 배치 및 필수 공간 동선을 점검하고 안전성과 디자인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컨설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센터 건립을 위한 아이디어를 설계에 반영해왔다. 우수 지자체의 사례는 향후 가족센터를 추진하는 지자체에 벤치마킹 및 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무안군은 최근 망운면 탄도해역에 방사형 인공어초 420개를 투하했다. 단지 조성으로 패조류와 어류 등의 자연산란장과 은신처를 제공해 지속적인 수산자원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 제공

무안, 탄도해역 인공어초 420개 투하

무안군은 망운면 탄도해역에 방사형 인공어초 420개를 지난 9월에 이어 최근 투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어초가 투하된 탄도해역은 수심 6-10m 해역으로 바지락, 굴, 감태 등이 서식

하고 있으며, 2017년 인공어초 적지조사 결과 패조류형 해역으로 판정됐다. 이번에 투하된 방사형 인공어초는 2.45×2.45×2.0m 규격의 패조류용이다. 단지 조성으로 패조류와 어류 등의 자

연산란장과 은신처를 제공해 지속적인 수산자원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인공어초 어장이 남획과 폐어구 투기 등으로 어장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목포, 활어위판장 신축 지원 수산물 관리·유통 개선 기대

목포시는 급증한 위판물량의 처리를 위해 현 활어위판장 바로 옆 부지에 총 50억 원을 들여 연면적 2,173㎡규모의 활어위판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북항 활어회플라자 내에 있는 활어위판장은 목포시가 2012년 개설해 목포수협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타 지역보다 높은 활어 위판가격에 따라 서남부 지역의 낙지 등 주요 활어가 목포 활어위판장으로 유입돼 수조 밖 공간까지 가득 채워진 상태로 위판이 이뤄지고 있다.

활어위판장이 신축되면 판매매를 통해 타지역으로 유통되고 있는 활어를 목포수협 위판장에서 구매하고 수산물을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 유통체계 개선은 물론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식 시장은 "앞으로도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편함이 없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완도 숲길 트래킹코스 조성

1차년도 사업 완료...군외면 달도~당목항 58.6km

완도군이 최근 숲과 바다, 섬이 어우러진 완도만의 독특한 산림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완도 섬자리 숲길 트래킹코스 조성 사업의 1차년도 사업을 완료했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민 및 관광객에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완도 섬자리 숲길 트래킹코스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완도군 12개 읍·면의 아름다운 산림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숲길, 마을길, 도심길 등 다양한 유형의 코스로 조성되고 있다.

완도군이 최근 숲과 바다, 섬이 어우러진 완도만의 독특한 산림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완도 섬자리 숲길 트래킹코스 조성 사업의 1차년도 사업을 완료했다. 23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민 및 관광객에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완도 섬자리 숲길 트래킹코스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완도군 12개 읍·면의 아름다운 산림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숲길, 마을길, 도심길 등 다양한 유형의 코스로 조성되고 있다. 이번이 사업이 완료된 1단계 구간은 완도읍과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등 5개 읍·면이다. 주요 구간으로는 군외면 달도(망포산) 약재를 시작으로 완도대교-수목원 수변쉼터-상왕봉 삼거리-조개산-서방산-완도타워-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장보고대교하단-약산대교-가사동백해변-당목항에서 끝나는 총 58.6km의 코스이다. 1단계 구간에는 국내 최대 난대림원 완도수목원과 산소음이온이 대도시에 비해 50배나 많은 신지명사심리해수욕장,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이 있어 숲길을 걸으며 힐링할 수 있다. 앞으로 조성될 2단계 구간은 금일읍, 금당면, 생일면, 청산면이며, 3단계는 노화읍과 소안면, 보길면이 해당된다. 2021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 2단계 구간인 금일읍, 금당면 등 4개 읍·면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이다. 박은재 환경산림과장은 "완도만의 청정한 환경과 산림해양관광을 활용한 트래킹 코스를 조성해 국민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완도가 산림치유와 해양치유를 아우르는 치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강진소방서 칠량 119지역대 청사 준공

강진군은 최근 강진소방서 칠량 119지역대 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승욱 강진군수를 비롯해 김도연 강진소방서장, 전남도의회 김용호·차영수 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관내 소방관계자, 의용소방대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층은 소방서 사무실로, 2층은 의용소방대원 사무실로 사용된다. 직원 6명, 차량 2대(소방차 1·구급차 1)로 운영된다. 이승욱 군수는 "이번에 칠량 119지역대가 준공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소방력 보강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강진군은 최근 이승욱 군수, 김도연 강진소방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강진소방서 칠량 119지역대 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강진군 제공

맥스코리아, 영암 삼호읍에 마스크 기탁

영암군 삼호읍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삼호읍은 최근 재경삼호읍회장을 역임한 추봉식 회장이 대표로 있는 ㈜맥스코리아에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매를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마스크 전달식에는 ㈜맥스코리아 추봉식 대표, 강찬원 군의장, 고천수 군의

원, 오자영 삼호읍장 등이 함께했다. 기탁받은 마스크는 삼호읍을 통해 경로당 55개소 및 기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추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는 시기에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목포 하당동 새마을부녀회장, 김치 전달

목포시는 최근 하당동 새마을부녀회 김순애 회장이 김치 25박스를 목포시장에인종암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전달해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실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순애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잘 극복하고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저의

작은 나눔이 파스함으로 전해지길 바라고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하당동장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김순애 회장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품을 기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면서 "흔쾌한 미담사례가 나눔문화 확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완도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완도군은 최근 빙그레공원과 5일시장 등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완도군과 완도경찰서,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안전자회, 웃음택시회, 안전보안관 등 9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각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 정류장·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5대 금지 구역을 알렸다. 봉진문 부군수는 "군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시책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무안읍, 취약계층에 동절기 물품 전달

무안군 무안읍은 최근 취약계층 7가구에 동절기 대비를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제력이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동절기 물품을 전달해 겨울철 한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했다. 무안읍 맞춤형복지팀은 사전 가정방

문 개별방문을 통해 대상자들의 수요를 파악한 후 난방유와 전기매트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대상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박남욱 읍장은 "겨울나기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